

# 1950년대 대학의 국문학 강독 강좌와 학회지를 통해 본 국어국문학 고전연구방법론의 형성과 확산

- 고전 텍스트 연구로서의 '이본' 연구와 '정전' 형성의 맥락을 중심으로

최기숙\*

<차례>

1. 서론
2. 1950년대 '고전 텍스트'를 둘러싼 '읽기 방법론'의 학적 문제제기
3. 전공 소양과 교양의 위계화: 학적 대상으로서의 옛 문헌, '딱지본 소설'과 '이본'의 거리
4. 학회지를 통한 고전연구방법론의 형성과 확산: 異本·先本/善本·正典의 형성 맥락
  - 1) 1950-1960년대 학회지를 통한 텍스트 연구의 층위
  - 2) 1950년대 이본 연구의 문학 연구사적 효과와 정전 형성의 맥락
5. 결론

## <국문초록>

1950년대는 한국의 대학이 근대적으로 재편되는 시기다. 이때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는 고전문학·현대문학·국어학이라는 세부 전공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고전문학의 경우는 '고전 강독' 강좌를 통해 고전 텍스트에 대한 리터러시의 확보를 학적 정체성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전공자의 학적 소양으로 간주하는 문화를 형성했다. '고전 강독'이라는 국어국문학과 강좌와 더불어 고전문학 연구방법론을 형성하는 주요한 통로는 텍스트 연구였다. 고전 텍스트 연구는 원본original text과 정본authentic text, 先本prior text/善本과 '정전canon'의 확정이라는 연구 영역을 고전 연구의 주요한 범주로 간주하게 되는 학적 관습을 형성했다. 이는 텍스트 선정의 문제, 자료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및 공개 방식의 문제, 자료의 해독과 관련

\* 연세대 국학연구원 HK교수

된 리터러시의 문제, 읽기 방법론의 전문성 문제, 이본 연구와 정전 확정의 거리 등에 관한 몇 가지 학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었다.

특히 ‘고소설’은 고전 강독 강좌의 대상인 동시에, 이본 연구의 주요 대상 장르였는데,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서 강의 텍스트로 선정됨으로써, 1950년 당시까지도 대중 독자의 통속적 독서물로 향유되었던 옛이야기, 구소설, 딱지본 소설과는 구분되는 ‘이본’이라는 학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문화적 위치 변경’ 및 ‘전환’을 수반하게 되었다. 1950년대 이르기까지 문학의 하위 장르, 또는 주변부 장르로 간주되어온 ‘고소설’이 고전문학 전공자에 의해 ‘연구와 분석’의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고전’으로 소환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관한 대학의 강좌로 개설됨으로써 명실 공히 학적 대상으로 범주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종합지와 문예지등의 잡지 매체가 대학에서의 고전문학 읽기 방법론을 대중에게 일종의 교양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학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학술지가 리터러시와 관련된 읽기 방법론의 ‘정통성orthodoxy’을 구축해 가는 과정을 형성했다. 이본 연구는 원본이나 정전의 확정보다는 텍스트 사이의 ‘차이’ 서술로 한정되었으며, 대상을 달리하여 무수히 반복될 수 있는 연구 관례의 가능성을 문제적으로 함축하고 있었다. 고전 발굴과 번역이 고전문학 연구방법론으로 간주되는 가운데 이를 일반 교양잡지나 문예지에 수록하고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고전 텍스트는 인문 교양서로 자리매김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현재까지도 고전문학연구방법론으로 통용되면서 고전문학 연구의 선결 과제로서의 텍스트 연구라는 고전문학 연구방법론의 관례를 확정했다.

**주제어** 1950년대, 대학,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 고전문학연구방법론, 고전강독강좌, 이본, 정본, 善本, 先本, 正典, 교양, 이본 연구, 학회지, 고소설, 딱지본 소설, 국어국문학회, 리터러시(literacy)

## 1. 서론

이 논문에서는 戰後 1950년대에 대학이 제도적으로 재정비 되는 과정

에서 국어국문학과와의 배타적인 세부 전공 영역이 결정되고, 그 하위 범주로서 고전 문학 강좌가 편제되는 과정에서 ‘고전 강독 강좌’가 형성되는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sup>1)</sup> 고전 텍스트에 대한 리터러시(literacy)의 문제가 함축하는 고전문학연구 방법론의 형성 경위 및 해당 능력(리터러시)이 고전문학 전공 소양으로 형성되는 방법 및 문화적 위계화 과정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서 고전문학을 둘러싼 ‘리터러시’의 확보 문제는 고전강독 강좌의 개설 형태를 통해 전공자가 습득해야 할 학적 소양으로 전제되었다. 고전문학 전공자는 고전 강독 강좌를 통해 텍스트의 해석이나 비평에 앞서 ‘읽기’ 자체의 능력을 일종의 전공에 대한 학적 능력으로서 갖출 것을 권고 받았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는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발휘되는 대상 텍스트의 선정을 읽기의 선결 과제로서 요청하게 되었고, 이는 원본(original text, 정본 authentic text, 先本 prior text/善本의 확정과 ‘정전 canon’의 확정이라는 연구 영역을 고전 연구의 주요한 범주로 간주하게 되는 학적 관습을 형성했다. 고전 문학의 대상 텍스트를 확정해야 하는 문제가 해당 연구를 문헌학, 또는 서지학적과 일정정도 접속하게 하되, 내용에 대한 질적 판단에 필요한 텍스트 ‘해석력’을 요청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선택된 텍스트 중에는 고소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고소설이 1950년 당시까지도 대중 독자의 통속적 독서물로 향유되었던 옛이야기, 구소설, 딱지본 소설과는 구분되는 ‘이본’이라는 학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문화적 위치 변경’ 및 ‘전환’을 수반했다. 1950년대 이르기까지 문학의 하위 장르, 또는 주변부 장르로 간주되어온 ‘고소설’이 고전문

1) 이에 관해서는 2010년 8월 연세대 국학연구원 HK사업단 국제학술대회(연세대 학술정보관 620호 세미나실, 2010. 8. 20)에서 최기숙의 발표문 『1950년대 대학의 ‘고전강독’ 강좌의 탄생과 ‘고전연구방법론’의 형성』을 참조.

학 전공자에 의해 ‘연구와 분석’의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고전’으로 소환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관한 대학의 강좌로 개설됨으로써 명실 공히 학적 대상으로 범주화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소설’이 국문학사의 정당한 범주로 편입되는 과정, 세계문학적 보편성 속에서 ‘소설’ 장르를 전근대로 소급해서 문학사적으로 해명해야 하는 문제 등 학문 제도적 상황과 긴밀한 상관성을 맺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종합지와 문예지등의 잡지 매체가 대학에서의 고전문학 읽기 방법론을 대중에게 일종의 교양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학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학술지가 리터러시와 관련된 읽기 방법론의 ‘정통성orthodoxy’을 구축해 가는 과정을 형성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에 주목하여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서 고전문학 ‘강독’ 강좌와 연계된 고전문학 연구방법론으로서 ‘異本 연구’와 ‘先本/善本’의 확정 및 ‘正典’ 형성의 문화사적 의미를 해명한다. 아울러 국어국문학 관련 학회지가 고전문학연구방법론을 확정하고 확산시키는 매체로 작용하는 과정이 함축하는 문제들이 현재의 고전문학연구 방법 및 방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해 재검토할 수 있는 연구 분석의 단서로 삼고자 한다.

## 2. 1950년대 ‘고전 텍스트’를 둘러싼 ‘읽기 방법론’의 학적 문제제기

戰後 1950년대 한국의 대학이 제도적으로 재정비 되면서 국어국문학과의 전공 편제는 사실상 고전문학·현대문학·국어학의 3분과 체제를 구축하면서 상호 타자화를 유지해 왔다. 세부 전공의 정체성은 연구 영역의 독자성과 연구 방법론의 차별성을 통해 생성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

히 ‘고전문학’의 경우에는 ‘강독 강좌’의 개설을 통해 전공의 독자성을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문학 내부에서 ‘강독’ 강좌의 개설은 고전문학 분과만의 배타적 요소는 아니었다. ‘이두’와 ‘고대 국어’ 등의 해독과 관련해 ‘국어학’ 분야에도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언어학과 문학이라는 특수한 연구 범주를 통해 상호 적극적인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두 분야는 해독과 주해의 범주 안에서 학문적 역량을 공동의 역량으로 인정하며 구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1】 1950년대-1960년대 초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고전관련 개설 과목

대학 (연도)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 관련 개설 강좌
연희대 (59년)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국문학강독 I, 국문학강독 III, 시가론, 초급한문, 고급한문
이화여대 (59년)	한문(A)(B),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국문학강독(A) (B:홍부전) (춘향전), 국문학특강(A:고대소설론)
서울대 (59년)	國文學特講, 國文學概論, 國文學史, 韓國漢文選說, 漢清蒙倭譯書研究, 資料解題, 時調講讀, 歌詞講讀, 小說講讀, 麗謠講讀, 鄉歌講讀, 漢詩講讀, 漢文小說講讀, 時調論, 歌詞論, 民謠論, 作家論, 書誌學, 韻律論, 詩歌發達史, 小說發達史, 演劇史, 散文演習, 特殊問題研究, 劇歌論, 麗謠論, 鄉歌論, 古代小說論, 說話文學論, 宮庭文學論, 古代作家論, 古代作品論, 韓國漢文學史, 韓中文學交涉史, 詩歌演習, 漢文演習
고려대 (61년)	漢文學講讀 I, 國文學概論, 漢文學講讀 II, 詩歌講讀, 韓國史籍解題, 國文學史, 韓國漢文學史, 國文學講讀, 國文學特講(古代小說論), 東洋史籍解題, 歌謠文學論, 韓國漢文學講讀, 近世小說講讀, 時調論, 國文學演習, 韓國漢文學特講

【표 1】은 연희대, 이화여대, 서울대, 고려대의 국어국문학과에서 고전문학과 관련되어 개설된 강좌명을 정리한 것이다.<sup>2)</sup> 교수의 숫자나 수

2) 이 내용은 <연세춘추> 157호(59.3.10, 2면)·175호:59. 8. 31), 『이화여대 대학안내』(1959), 『普成專門學校一覽』(昭和 6年 7月), 『서울대학교 일람』(1959)을 참조했다. 예시 대학은 국립대학, 사립대학, 사립여자대학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다. 더 많은 대학을 표본으로 삼았을 경우, 본 논문의 분석 결과가 달라지지는, 있다면

강 인원 등의 가변성이 있으므로 모든 과목이 매 년, 매 학기에 실제로 개설된 것은 아니겠지만, 고전문학의 경우, 대체로 강독 강좌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를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표 2】 1959-1961년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강독 관련 개설 강좌

대학 (연도)	국어국문학과 '강독' 관련 개설 강좌
연희대 (59년)	국어학강독 국문학강독
이화여대 (59년)	국어학강독(A) (B) (C:이두문) 국문학강독(A) (B:홍부전) (춘향전)
서울대 (59년)	국어학강독 시조강독, 가사강독, 소설강독, 여요강독, 향가강독, 한시강독, 한문소설강독, 외서강독
고려대 (61년)	고대어강독, 중세어강독, 근세어강독 한문학강독 I, 한문학강독 II, 시가강독, 국문학강독, 근세소설강독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독 관련 강좌들은 ‘국어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전문학에 해당되었으며, 고전문학 분과의 내부에서는 ‘문학사’와 ‘장르론’과 더불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전 강독’ 과목은 50년대 대학이 재정비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사례로 제시한 해당 대학에서도 현재까지 고전문학 강좌 안에 편제되어 있다.<sup>3)</sup>

그런데 주목할 것은 대학의 국어국문학 내부의 ‘강독’ 강좌는 국문학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과대학 일반의 텍스트 해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강좌 구성으로 편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sup>4)</sup> 문과대학의 학과별 강

어떤 방향일지에 관해서는 자료 수집의 범주와 분량을 확대하여 또 다른 연구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2007-2010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대학원 국문과 학사편람을 보면 여전히 <고전소설강독>, <국어학선독>, <고전비평선독> 등의 ‘강독’ 과목이 편제되어 있다.

좌 구성에서 ‘강독’이 배치되는 방식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했다. 첫째, 당대성과 동떨어진 ‘고전’의 영역에 머물러 있고 표기 방식이나 체계가 당대와 달라서 텍스트 독해를 위해 전문적인 ‘번역’이나 ‘주해’가 필요한 경우였다. 둘째, 텍스트의 언어가 수강생의 모어(母語)와 달라서 텍스트 해석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였다. 그 중에서도 국문학과의 경우에는 ‘국어학 강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강독’ 강좌가 ‘고전문학’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황은 ‘강독 과목’이 ‘리터러시’의 확보를 ‘고전문학 전공자’의 고유한 학적 소양으로 간주하는 전통을 형성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보여준다. 초기에 이는 ‘한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문해력’의 습득을 의미했지만, 전근대 문학을 포괄하는 고전 텍스트 일반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리터러시’의 확보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sup>5)</sup> 이는 ‘강독’의 대상 장르가 단지 ‘한문학’으로 한정되지 않고 ‘시조 강독’, ‘고소설 강독’ 등의 저변을 넓혀가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강독 과목의 편제는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학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었다.

첫째, 텍스트 선정의 문제다. 이것은 고전 텍스트의 특수한 존재 현황과 관련된다. 저작권이 판권이라는 상업적 개념과 연관되지 않았던 시대적 조건에 따라, 또는 (소설과 같은 경우) 저자가 누구인가가 텍스트를 읽는다는 문화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의미가 차별화되는 맥락이 설정되지 않던 시대에 문학 텍스트, 특히 고소설 텍스트는 필사본으로 존재

4)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및 논의(1950년대-1960년대 초반,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대의 ‘강독’ 관련 개설 강좌 목록표 등)에 대해서는 최기숙, 앞의 발표문을 참조.

5) 전근대 시기 텍스트의 표기 형식으로는 한문과 국문이 모두 존재하며, 국문의 경우에 필사본을 읽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하면서 수많은 이본을 파생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고소설 텍스트의 존재 현황은 ‘텍스트 연구’를 위한 일차적 관문으로서의 이본 연구를 고소설 연구는 물론 고전 연구의 필수적 과정으로 성립시켰다. 이러한 연구의 맥락 속에서 학생-독자들은 아무 텍스트나 읽어서는 안 되며 교수가 선택하여 검증한 텍스트를 읽을 것을 권유받았다. 고소설을 예로 든다면, 딱지본을 읽는 독자와 교수가 주해하여 학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간주된 고소설 번역본을 독자는 문화적 ‘구별짓기’<sup>6)</sup>의 대상이 되면서 상이한 문화 가치를 창출해 갔던 것이다.<sup>7)</sup>

둘째, 자료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및 공개 방식의 문제다. 이는 자료의 독점적 소유를 통한 번역과 주해 및 해석의 독점성과 관련된다. 고전 텍스트는 이본으로 존재하므로 특정인이 자료를 독점할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독해의 독점성을 소유하게 된다. 해당 연구가 제한된 연구자에게만 가능한 것은 자료의 독점이 곧 독해의 독점권으로 이어졌던 사회적 맥락과 이어졌다.<sup>8)</sup> 자료를 공개하는 공적인 방식은 학술 저널이나 문예지, 중

6) 이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용어다.

7) 60년대에 서울대 국문과 학생이었던 전 서대석 서울대 교수(2008년 퇴임)에 따르면 당시 <국문학 강독>을 담당한 장덕순 교수는 <유충열전>을 비롯해 세창서관본 고소설 몇 권을 교재로 선정하여 강독 수업을 진행했으며, 중간·기말 시험에는 소설 속의 단어 뜻을 설명하라는 문제를 제출했다고 한다(2010년 6월 26일 필자와의 구술 대화 중에서). 말하자면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고전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취미로서의 고전 독서, 딱지본을 읽는 행위와는 엄밀히 구분되었다. 참고로 1920-30년대의 베스트셀러는 염상섭이나 이상의 소설이 아니라 <춘향전>, <조웅전>, <추월색> 등의 고전소설이나 구활자본 신소설이었다고 하는데(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39쪽), 50년대에도 독자층이 남아 있다면 이러한 대중 독자와 <국문학 강독>에서 같은 소설을 읽은 대학생들의 독서 행위는 ‘읽기와 연구’, ‘취미와 학문’이라는 엄연히 다른 문화적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8) 최근에는 웹상으로 고전 자료가 원문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되거나, 번역되어 올라오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자료 접근성이 제고되어 대상 텍스트에 대한 연구 활용의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희귀 자료나 주요 자료에 대한 독점성은 유지된

합지 등 잡지에 원문을 기고하는 방식이었는데, 학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원문을 영인해 공개했으며, 이 또한 학문 활동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예컨대, 초기의 국문학 학술지라 할 수 있는 『조선학보』에는 초기 간행본부터 한문 원전 영인본이 주석 없이 실리는데, 이는 해당 학회지의 대상 독자가 조선학 전공의 학자로 상정되었고, 이들은 ‘한문 해독력’을 갖춘 것으로 전제되었기 때문이었다.<sup>9)</sup>

텍스트의 원문을 영인하여 공개하는 것 이외에 텍스트를 주해하여 학회지에 기고함으로써 주해 작업 자체를 학문 행위로 인정하는 관행이 형성된 것도 이 즈음이었다. 『조선학보』를 예로 들 경우 29집(1963.10)에 허웅 교수가 주석한 <註解 月印千江之曲 上>이 게재되기에 이른다. 텍스트의 영인과 아울러 이에 대한 주해 작업 자체가 ‘학술 활동’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에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오늘날과 같이 학진의 평가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어 ‘업적’으로 계량화되고 교수자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sup>10)</sup> 학술지의 성격상 여기에 실린 글, 논문을 모두 ‘학술 활동’으로 인정했음은 물론이다.

이때 특정 텍스트에 대한 해설이나 분석 수준의 학문 행위는 텍스트 소개에 선행함으로써, 연구자가 자료에 대한 일차적 발언권을 갖는 것으로 관례화되는 학문 풍토가 형성되었다. 예컨대, 일본의 조선학회에서 1951

---

다. 이 경우 연구자는 자료의 해제나 일차적 연구 소개만으로도 연구발표를 할 수 있는 연구의 독점권을 갖게 된다. 학회지에 소개되거나 발표된 글들은 공공의 지적 재산으로 공개됨으로써 연구의 확산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소유자가 연구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역으로 자료의 소유자가 전체 연구를 보류하고 정지시켰다는 학문 권력화의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9) 예컨대, 『조선학보』 17집(1960.10)-18집(1961.1)의 <名物考> 등을 들 수 있다.

10) 이에 관해서는 2010년 제 3차 연세대 국학연구원-동경대 UTCP 국제 워크숍에서 천정환의 발표문 「대학제도, ‘학진’과 비평, 그리고 글쓰기의 문제」(2010.3.3.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 620호)를 참조.

년부터 발행된 학술저널 『조선학보』의 초기 간행본에는 조선문학 텍스트의 한문 원전이 영인되어 실리는데, 자료에 대한 해제가 선행하고 자료 영인본이 그 뒤에 실는 관행을 보여주었다.<sup>11)</sup> 해제자가 자료에 대한 연구 권한을 선점하는 관행을 학회활동의 초기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학술지에는 자료의 소개 및 해제가 실림으로써 이를 학문 활동의 형식으로 간주하는 문화를 형성했으며, 일반 독자를 고려한 매체의 경우에는 대체로 현대어 번역과 주석을 병치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교양 독자, 인문 대중의 개념이 잠정적으로 고려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sup>13)</sup> 주석서나 번역서 자체를 대학 교재 및 일반교양서로 출간함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교수의 강독이라는 교육 과정 없이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자율적, 단독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1950년대를 전후해 대학의 국문학과에서 고전 강독 강좌가 형성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sup>14)</sup> 고전 주해서, 또는 번역서의 출간은 고전 읽기를 인문

11) 예컨대 『月峰海上錄 攷釋』(『조선학보』 21·22집, 조선학회, 소화 61.10)이 먼저 기고된 후에 『影印 月峰海上錄 上』(『조선학보』 23집, 소화 1962.4)이 소개되며, 『<石川遺集>(後集 卷 1,2) 해제』(『조선학보』 30집, 1964.1)가 먼저 게재된 뒤에, 해당 자료가 영인본으로 소개되는(『조선학보』 33-34집, 소화 1964.10-1965.1) 식이다.

12) 자료의 소유권과 연구권한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로 간주되지만, 또한 후속 연구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자료 소유자의 공개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상태다.

13) 예컨대 『문장』지에 번역되어 연재되거나 전제된 <한중록>, <도강록>, <호질>, <인현왕후전>, <서대주전>, <춘향전이본집> 등의 고전문학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목록과 서지에 관해서는 차혜영, 『‘조선학’과 식민지 근대의 ‘지(知)’의 제도』(『국어국문학』 140호, 국어국문학회), 2005, 519쪽을 참조. 필자가 다시 해당 잡지에 실린 원문을 확인한 결과, <서대주전>의 경우는 번역 없이 한문 원전을 전제한 바, 독자층을 한문 해독력을 갖춘 지식층으로 상정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4) 조운제 교수의 <춘향전>(박문서관, 1939)과 이가원 주석의 <춘향전>(정음사, 1957) 출간이 그 예다. <연희춘추> 108호(57.9.16)에는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가원 주, <춘

교양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15)</sup> 대학 교수의 주해 작업이 일반의 고전 독서의 대상 텍스트가 됨으로써 일종의 ‘교양’ 독서의 의미를 함축해 갔던 것이다.

셋째, 자료의 해독 능력과 관련된 ‘리터러시(literacy)’의 문제다. 이는 표기문자의 특성으로 인한 접근의 난해성과 관련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번역’을 통해 표기 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했다. 고전 텍스트의 표기체계는 한문이거나 국문 고어로, 그에 대한 번역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했으며, 독자적 번역을 넘어선 ‘주해’ 수준의 주석 작업이 병행되어야 했다. 이것은 고전 번역의 특수성으로서, 번역자는 단지 한문 소양이 풍부한 데서 그쳐서는 안 되며, 텍스트의 본질적 맥락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적인 차원을 장악한 주석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요구받았다. 고전 번역이 전문 번역 능력을 소유한 전공 교수에 의해 수행되고 반드시 주석과 해설을 병치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을 함축하고 있었다.

대체로 국문학의 고전 번역은 근대적 지식인의 주요한 역할로 간주되었다. 최남선을 비롯하여 근대적 대학의 국문과 교수들은 향가의 해독, 한문소설의 번역, 국문 소설의 현대어 번역과 주석 등을 통해<sup>16)</sup> ‘고전’을 ‘읽

---

향전>; 박성의 주 <송강가사>; 연세대 교수 허웅 <옹비어천가>”에 대한 광고가 실림으로써 고전 주해서가 일반 교양 독서물로 홍보된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15) 1950년대 대학의 신문에서 고전 번역과 관련된 ‘광고’가 꾸준히 실리는 것도 이러한 문화적 풍토를 반영한다. 예컨대 <연희춘추> 2호(1953.7.1)의 광고에는 조의설의 『서양사개설』을 비롯해 『신학논단』, 『국어국문학』의 광고가 실리는데, 『국어국문학』의 경우, 수록 논문과 주석에 관한 글의 목차가 소개 되어 있다. 이기원의 『원생몽유록 주석』(4호), 강한영의 『춘향가 주』(5호) 등이 그 예다. 그밖에 <연희춘추> 93호(57.1.15)부터는 연희대 동방학연구소에서 국고총서로 간행된 <한한청문감>, <월인석보> <고려사> <삼국사기 색인> 등의 광고가 지속적으로 실린다. <춘향전> 등의 고소설 주석본 및 번역본에 대한 광고는 이 논문의 각주 12)를 참조.

16) 교수는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자어로 된 것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야 하며,

을 수 있는' 문학 작품으로, '주해본'을 고전강독의 '교재'로 선택함으로써 학적 독서물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형성해내었다. 동시에 대학에서 '고전강독'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번역본이 아닌 '원문'에 대한 독해력을 갖추도록 훈련받음으로써 '번역본'이나 '주해본'을 읽는 일반 독자와는 차별화된 '전문적 독서인'이라는 문화적 위치를 형성해가게 되었다.<sup>17)</sup>

넷째, 읽기 방법론의 전문성 문제다. 일반인도 고전을 해독할 수 있으며 번역서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들의 독해가 갖는 문화적 의미는 대학에서 고전 읽기 방법론을 배운 '전문적 독자'와는 구분되었다. 연희전문의 조선어 과목 소개에 따르면 문학을 공부한다는 행위에는 '비평적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다.<sup>18)</sup> '비평'은 일반적 독서와 구분되는 '전문적

---

필사된 국문본을 현대어로 번역하고 각주를 달아야 한다. 예컨대 <남원고사>의 경우, 국문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한문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기호체계이므로, 해당 자료의 '이해'를 위해서는 국문 표기에 대한 '주해'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17) 1950년대 <연희/연세춘추>에는 대학생 스스로 '원전을 읽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대학생의 독서 경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대학생들은 영미, 프랑스 등의 '원서'를 감명깊게 읽는 책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연희춘추>134호(58.6.16)에는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진실한 대학생활의 향상을 위한 재검토>라는 특집란을 마련하고 홍이섭 교수가 『현대적 지식에서의 고립:교양을 위한 독서의 해결책은 없나?』라는 글을 기고했는데, 대학생은 앞으로 사회의 대중교양을 위한 독서의 기반을 닦을 사람이므로 '원전에 근접한 것'을 읽고, '고전 이해'에 있어서 자구의 음의 이해에서 나아가 '현대적 의의의 포착'에 이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이에 관해서는 최기숙, 『1950년대 대학생의 인문적 소양과 교양지』의 형성: 1953-1960년간 <연희춘추/연세춘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2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을 참조).

18) 연희전문의 <조선어 과목> 중에서 <문학> 담당자는 정인보 교수였는데,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선문학의 다양한 형태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소재는 대표적인 시, 가사, 소설, 근세 산문, 번역된 중국시가 소개, 비평적 연구와 설명적 강의', '조선문학 발달의 비평적 연구, 고대문학, 삼국시대 문학, 통일신라문학, 고려시대 문학의 중국적 형태와 한국적 형태의 같음, 문예중흥기와 후기 발달 연구 및 비평, 강의와 독서로 소개하고 있다(정선이, 『연희전문 문과의 교육』, 연세대 국학연구원편, 『근대학문의 형성과 연희전문』, 2005, 90쪽).

읽기' 영역에 속해 있었고, 이미 1950년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각종 문예지나 종합지에 이에 관한 글을 투고하는 전문 연구자가 존재했던 고유한 영역이었다. 독서 대상이 '고전'인 경우 이는 문학 이해를 둘러싼 일반적 요소와 비평적 관점 이외에 '고전'이 지닌 텍스트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라는 특수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전비평, 평설, 해설은 고전 연구자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다시 말해 이광수나 염상섭 연구자가 <춘향전>이나 <구운몽>에 대해 비평'할 수 없는/하지 않는' 학적 관행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다섯째, 50년대까지, 고전 문학 연구는 '조선문학'의 범주 안에서 논의 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고전'의 개념이 강조되지 않았다. 강좌구성에 있어서도 '고전강독' 아닌 '국문학 강독'으로 명명되었으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도 '고전' 또는 '고전문학'을 표제로 내세우지 않았다. 예컨대, 『조선어문학회보』(3호:32.2.7)에서 연암소설을 개관할 때에도 '고전'이 아닌 '소설'란에 실렸으며, 『한글』(9호:33.8.4)에서 『조침문』을 소개하며 '고전'이 아닌 '옛적 글'로 분류했고, 『문장』(15호:40.4.1)에서 『서대주전』을 소개할 때에도 '순환문 조선소설'이라고 병기하며 '소설'로 분류했다. 다만 『문장』(12호:40.1.1)에서 『도강록』을 소개할 때 '조선한문고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정도였다. 이러한 것은 당시에 '국문학'이란 곧 현대적 의미에서의 '고전문학'이라는 기호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된다.<sup>19)</sup>

19) 이에 대해서는 최기숙(2010), 앞의 발표문을 참조. 이는 초기의 국문학의 학적 편제가 1세대 국문학자들의 학적 경험에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고, 이들은 경성제대에서 수학하거나 동경제대 출신의 일본인 교수들에게서 수학한 학적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과 관련된다. 아울러 초기의 국문학 연구가 '국학', 또는 '조선학 운동'과 연관됨으로써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문학의 기원에 대한 역사화 작업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 관련된다. 그 과정에서 '문학사의 자기 동일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한 비판적 고찰은 별도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에서 ‘고전’을 표제로 내세운 것은 이태극의 『고전연구 서설』인데, 여기서는 ‘古典文學이라면 韓末文典以前에 依據하지 아닝지 못할 것’으로서 ‘現代文學의 血脈’<sup>20)</sup>이라는 위상을 지닌 것으로 전제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고전’의 함의는 ‘正典’의 개념은 아니었다.

학계에서 공적 논의를 거친 합의 개념으로서의 ‘정전’ 관념은 이후 80년대까지도 출현하지 않았다.<sup>21)</sup> 그보다는 텍스트 선정과 관련해 시대가 앞선 ‘先本’<sup>22)</sup>이나 텍스트의 질적 우수성(개연성, 논리적 정합성, 주제의 심층성)을 확보하는 ‘善本’에 대한 관점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 차원에서 행사된 ‘정전’ 규정의 주체는 ‘대학’과 ‘교수’였다. 대학의 국문과 고전문학 수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채택되는 고전 텍스트가 존재했고(예컨대 <호질>, <춘향전>, <구운몽> 등), 이는 실질적인 ‘정전’으로서의 문화사적 지위를 확보하며 일반 독자들이 알아야 할 교양으로 설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전’이라는 텍스트의 문화사적 지위는 담당 교수의 학문적 관심을 통해 텍스트가 번역되거나 강의 교재로 활용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확보되었다.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강의 교재가 채택되는 일은 없었고, 학회나 학적 교류를 통해 ‘정전’으로서의 텍스트

20) 이태극, 『古典 研究 序說』, 『국어국문학』 2집, 국어국문학회, 1952, 19쪽.

21) 문학에서의 ‘정전’ 논의가 학계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최근의 일이며, ‘정전의 형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앞선 시기를 소급해 연구 분석한 일련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예컨대, 최기숙, 『‘옛 것’의 근대적 소환과 ‘옛 글’의 근대적 재매치: 『소년』과 『청춘』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4집, 민족문학사학회, 2007.; 이형대, 『1920-30년대 시조의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8.; 『문학교육학』 25집 특집(2008) ‘문학교육 정전의 재구성’에 실린 일련의 논문 및 이종호, 『1950년대 남한 문학전집의 출현과 문학정전화의 욕망 민중서관 『한국문학전집』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5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등을 들 수 있다.

22) 김태준의 『증보 조선소설사』에서도 춘향전의 여러 이본 중에서 <열녀춘향수절가>를 택한 이유로 (사실의 확실성과 무관하게) ‘편의상 가장 오래오리라 생각되는 전주 토판(土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증보조선소설사』, 박희병 교주, 한길사, 1990, 187쪽).

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질문하고 토의하는 기회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 3. 전공 소양과 교양의 위계화: 학적 대상으로서의 옛 문헌, ‘딱지본 소설’과 ‘이본’의 거리

초기의 국문학자들에게 주요한 학문적 과제는 자료의 ‘발굴’과 ‘수집’이었다. 고문헌을 수집했던 이병기는 고어 발굴에 노력하여 어휘들을 탐색한 『조선어문학명저해제』를 펴냈으며, 『고어집』이라는 연구 노트에 10여종의 중세국어 자료와 10종의 근대국어 자료에 담긴 어휘들을 직접 옮겨 적는 일을 했고, 권덕규와 제휴하여 1921년부터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sup>23)</sup> 자료의 발굴과 수집은 국어학과 문학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한 학적 과제였다.<sup>24)</sup>

고전문학의 경우로 한정한다면, 경성제대의 초기에서부터 자료 수집은 국문학 연구의 주요한 과제였다. 국문학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도 자료의 수집은 필수적이었으며 문학사적 의의라는 이름으로, 또는 여러 개의 이본 가운데 해당 텍스트의 ‘위치’를 설명해 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였다. 고전 연구의 출발은 동일한 제목에 대한 해당 텍스트의 ‘위치 서술’과 ‘차이 서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원본을 규명함으로써 정전을 선별해 내기 위한 수순이었지만, 사실상 저자와 서지를 밝혀내기 어려운 소설과 같은 경우, 이는 텍스트 간의 ‘차이 서술’을 통해 텍스트의 ‘위치’를 규정하는 ‘이본 연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원전’을 가려내기 위해 수

23) 류준필, 『形成期 國文學研究의 展開樣相과 特性: 趙潤濟·金台俊·李秉岐를 中心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98, 87쪽.

24)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시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성의 해명에 관한 학적 형식화 방식에 있었다.

행된 고소설의 텍스트에 대한 이본 연구는 보다 앞선 시기의 텍스트로서의 ‘先本’에 대한 규정, 나아가 텍스트의 문학적 완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善本’을 추려내는 작업으로 선회하게 된다.

고전 텍스트, 특히 ‘고소설’을 둘러싼 이본 연구는 비록 원본의 확정이나 先本の 규정에는 실패하거나 잠정적으로 유보되더라도 텍스트 간의 위치 설정이나 차이 서술을 ‘해석’ 행위에 ‘선행’하는 연구 단계로 확정하는 관습을 형성하면서, 고소설 연구 방법의 자연스러운 단계로서의 위치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고소설을 둘러싼 독자들이 위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자 집단이 연구 대상으로서의 고소설을 ‘異本’으로 호명하면서 고전의 범주 안에 포섭하는 행위와, 대중 독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딱지본’ 또는 ‘육전소설’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면서 시장이나 가판대에서 팔리는 ‘구소설’의 문화적 위치를 구분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다시 말해 50년대 고전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는 고소설은 속칭 딱지본 소설로 불리며 식민지 시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통속물로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다.<sup>25)</sup> 고소설은 재미있는 읽을거

25) 구할자본 고전소설은 1930년대 중반까지도 대중에게 인기를 끌어 1935년 ‘서적 도매상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춘향전>이 연간 7만권, <심청전>이 6만권, <홍길동전>이 4만 5천권이 팔렸다고 하며, <춘향전>의 경우 1930년대 중반까지도 1년에 40만부씩 판매되다가 1930년대 말에 들어와서야 절반 정도로 판매부수가 감소했지만, 1912-1942년 97쇄를 발행했다. 신소설의 경우 가장 많이 발간된 <추월색>의 경우 1912-1912년 사이에 18권이 간행되었으며, 1930년대 ‘신문학’ 서적의 경우 보통 관례적으로 소설의 1쇄는 1,00부를 찍었다고 한다. 딱지본 소설은 1960-70년대까지 대중 독자의 한 부분으로 잔존했으며, 대표적인 딱지본 고전소설 출판사의 하나인 세창서관은 1960년대까지 딱지본 책을 발행했고, 1970년대 초반까지도 시골 장날 난전에서 가마리를 깔고 딱지본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다. 서울에서도 1980년대 초반까지 종로3가 세창서관 앞 골목이나 탐골공원 근처에서 이런 소설책을 파는 노인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천정환, 2003, 70-72·90쪽).

리로서의 유희성을 담보해 주고, 지적인 흥미를 자극하는 교양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었던 바, 1930년대 『중앙인서관 도서목록』에 따르면 다양한 수의 고소설들이 출간되어 목록으로 제시될 정도의 선택지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문화적으로 ‘저급하고 퇴행적인 오락물’ 또는 ‘노인이나 보통학교도 못 다닌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내용은 완전히 청산해야 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지목되었다.<sup>26)</sup>

그러나 대학에서 고전문학이 영토화되는 과정에서 ‘고소설’이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부각되고 ‘이본 연구’, 또는 ‘판본 연구’라는 학적 대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고소설은 원작을 가려내는 ‘연구사적 대상’으로 부각됨과 동시에 명실 공히 유력한 ‘문학사의 자원’이자 ‘전통’으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구소설과 신소설을 문학적 가치판단의 경합적 관계에서 논의하는 대신, ‘문학사적 현상’의 일부로 조명함으로써 작품을 보는 시선을 재구조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문학사’라는 관점을 통해 가능한 시각의 재배치였다.

고전은 ‘연구자’에게 선택되어 연구의 대상이 됨으로써 비로소 문학으로 간주되었다. 대중독자가 읽는 딱지본 고소설이 여전히 통속물이었던데 비해, 연구자에 의해 텍스트의 성격을 규명하고 텍스트간의 위치를 규정하는 이본 연구는 그것을 ‘고전’으로 인식하게 했다. 고전소설 연구자들은 이를 ‘취미’로서의 독서와 구분하여 분석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학적 대상으로 자리바꿈하도록 했다.

이는 국문학 강좌로서 개설된 고소설 연구, 또는 고소설 강독 강좌와 연관성을 지닌다. 해당 과목들은 이미 문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폄하되어 난전에서 유통된 ‘딱지본’ 중심의 대중 독자들의 취향과는 다른 ‘문학

26) 천정환(2003), 72-74·87쪽. 이에 대한 견해는 한기형, 『신소설의 근대문학적 위상』, 성대 박사논문, 1997, 128쪽 참조.

사적 관점'에서 다루어졌으며, '이본 연구'라는 태도를 '읽기'의 전제로 삼아 이를 강의 내용으로 선별하는 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즉 '취미'로서의 독서와 '연구'로서의 독서 행위가 구분되면서 (경판, 완판 등의 '판본' 연구를 포함하여) '이본 연구'가 고전연구의 한 분야로 영역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시대에 향유된 고소설은 창작 당대는 '정통' 문학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신소설이 출현한 당시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근대적 대학교육을 받은 1세대 연구자들이 이를 '문학사 서술의 범주'안에 포함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대학 수업의 교육 대상으로 삼는 과정을 통해 '고전문학'의 범주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면서, '고전'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들은 근대초기에 출현한 신소설과 구별하기 위해 '구소설'로 지칭되다가 근대적 대학교육을 받은 1세대 연구자에 의해 '고전'으로 지칭되었고, '옛소설', '구소설', '고소'설 등 단순히 역사적 과거를 지칭하던 용어에서 벗어나 '가치 함축적'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고소설의 지위 변동이 대중, 또는 교양의 차원으로까지 확산된 것은 전문가에 의한 '번역'과 '주해'작업을 통해서였으며 <국문학강독>, 또는 <고소설강독> 등, 텍스트 읽기에 관한 '리터러시'를 요구하는 전공 과목의 교재로 채택됨으로써 확고해졌다. 50년대 이전에 이미 종합잡지, 문예지, 학술지 등을 통해 '한국고전 자료'가 소개되거나 주해됨으로써 대중독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텍스트를 흥미분위로 읽는 방식과는 구분되는 '學'과 '知'로서의 '고전 읽기'와 '고전이해'의 문화가 형성되기에 이른 것이다.<sup>27)</sup> 예컨대, 딱지본 <별춘향전>의 독자와 조운제가 주해한 <춘향

27) 차해영은 『문장』, 『진단학보』, 『신흥』, 『조선어문학회보』 등에 수록된 조선학과 고전 관련 글에 대해 '전문적 학술논문'을 주로 실음으로써 '학문연구로서의 성격'을 일정정도 확보하고 있었고, 고전문학의 경우 실증적 해설과 장르사가 주류를 이룸으로써 전문분과학문으로서의 연구의 면모를 확보해 갔음을 지적한 바 있다. 논자는 『문장』지가 조선학이라는 근대적 전문 분과학문이 그 분과학문을 전유(향유, 소비, 인식, 판단)

전> 주석서를 읽는 것은 상이한 문화적 의미를 생성하고 있었다. 대학은 원전, 또는 주해본을 강의 교재로 채택함으로써 고소설 읽기를 ‘고전 교육’의 차원으로 위치변경시켰고 해당 텍스트에 대한 읽기는 ‘학술적 차원’의 의미 맥락을 강화시켜나갔다. 동시에 이는 인문학 전반에서 학과를 불문하고 개진되었던 교양으로서의 고전 읽기라는 문화 문맥 속에서 자리매김되었다.

1950년대에 간행된 종합지 『사상계』에는 지속적으로 ‘고전 소개 란’, 또는 ‘교양란’이 배치되는데, 그 가운데서 26호-76호에 게재된 <연재교양-고전해설>란에는 모두 국내의 고전을 제외한 서양 고전과 <논어>, <제자백가>, <唐詩> 등의 중국 고전이 게재되었다. 『사상계』의 <고전해설>란에 소개된 총 41편의 고전 텍스트에는 문학, 경전, 철학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서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한국 고전 텍스트는 어떤 장르로서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고전은 점차로 교양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사상계』에서 한국 고전을 소개하는 란을 <교양>이라는 명목으로 소개한 것이 그 예다. 한국 고전의 국역이 『사상계』의 [교양] 란에 실린 것은 62호(58.9)에 실린 양주동, 『고전국역-異苔同峯抄(1)-한국 한문학 명문선』이 처음으로, 66호까지 총 5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62호의 같은 란에는 정병옥의 『우리문화의 명맥1-김시습의 생애와 사상』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이후 <교양-우리 문화의 명맥>이라는 별도의 란을 통해 74호까지 총 10편의 고전 작가와 그 작품이 소개되었다.

---

하는 집단으로서의 대중을 교육 창출하는 장으로서 위치했다고 추론하면서 『문장』이 내세운 ‘교양과 ‘품격’이라는 관념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2005, 511-514·518쪽).

【표 3】 『사상계』에 실린 &lt;교양-우리문화의 명맥&gt;

『사상계』: 교양-우리문화의 명맥			
번호	계재호(연월)	필자	제목
1	62(58년 9월)	정병욱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
2	63(58년 10월)	이가원	연암 박지원의 생애와 사상
3	64(58년 11월)	유창돈	송강의 발자취-그의 강렬한 국어 의식
4	65(58년 12월)	천관우	반계 유형원
5	66(59년 1월)	허웅	주시경의 생애와 업적
6	67(59년 2월)	김경탁	서화담의 생애와 사상
7	68(59년 3월)	김동욱	이씨조선의 이방인 허균
8	69(59년 4월)	한우근	성호 이익
9	73(59년 8월)	이재수	면앙정충순-그의 문학시교
10	74(59년 8월)	이해구	朴堧이 후세에 준 음악유산

【표 3】과 같이 『사상계』에서 한국 고전을 [교양]란에 배치한 것은 37호에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생애에 대한 안병욱의 소개 글을 필두로 75호에 이길상의 ‘아레니우스-그의 탄생 100년을 기념하여’까지 연재되었던 <연재교양-사상과 생애>란이나 42호에 성장환의 『자본주의이전의 경제사상의 발전(상)』을 필두로 단일 필자에 의해 53호의 『근대경제학(완)』까지 기고된 <연재교양-세계경제사상사>란, 46호에 이용희의 『신화적 지배의 세계와 그 붕괴』를 필두로 단일 필자에 의해 57호의 『근세후편(4) 반혁명과 보수주의(근대민주주의사상 (3))』까지 게재된 <연재교양-세계정치사상사>란과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었다. 즉, 『사상계』의 독자층을 지식인 독자층, 또는 교양 독자층으로 이해할 때,<sup>28)</sup> 한국의 고전 또한 당대의 ‘교양의 일부로 자리하여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28) 『사상계』의 독자층에 관해서는 김건우, 『1950년대 후반 문학과 <사상계> 지식인 담론의 관련 양상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2002) 등을 참조.

이러한 맥락과 더불어 고소설 또한 고전 읽기라는 교양적 맥락에서 전집으로 출간되고 있었으며, 한국의 고전문학은 세계의 고전(문학, 역사, 철학, 경제 등)과 병치되어 ‘세계 고전’이라는 문화적 맥락 속에 재배치됨으로써 부동의 학적 지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출판계를 통해 문화상품으로 홍보됨으로써 한국 고전이라는 문화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 4. 학회지를 통한 고전연구방법론의 형성과 확산:

##### 異本、先本/善本、正典의 형성 맥락

1950년대 이전에 대학에 전공으로서의 국문학과가 편제되고 ‘과목’으로서의 고전문학 강좌가 배치되기 이전에는 종합 잡지나 문학잡지 등의 매체와 실천적 운동 차원에서 ‘조선학’과 ‘전통’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의 고전(문학) 연구를 담당해 왔다. 이는 ‘고전학’으로서의 통일된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연구자나 필자 간에 주요한 연구의 화제로 선택되고 문단과 역사학, 문학계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일종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식민지 시기의 민족주의적 지향성과 전통의 복원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민족적 자기 동일성을 구축하려는 역사문화적 반응의 학적 결과이기도 했다.<sup>30)</sup> 동시에 식민지 근대가 맞이한 위기를 전통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선회하여 극복하려는 문화 운동의 실천 방식이었다.

29) 『사상계』에 소개된 교양으로서의 고전에 김시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설이 누락된 것은 해당 란이 주로 ‘인물’ 위주로 사상과 생애를 조명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0) 식민지시기에서 戰前의 고전연구는 ‘조선학 운동’, ‘전통론’을 중심으로 고구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차혜영(2005), 1장의 연구사 검토를 참조.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단일한 운동으로 정리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역사문화적 맥락을 함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그간의 연구가 고전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거나 고전 자료를 게재한 잡지 매체나 조선학 운동을 전개해나갔던 학술단체 및 소속 연구자, 고전의 현대화를 시도했던 시조 작가 등 문인 차원의 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구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는 해당 시기의 학적, 문화적 움직임을 전통 담론이라는 포괄적 차원에서 수렴하여 일정한 정의를 내리려는 연구에서부터 ‘고전’, ‘조선학’, ‘전통’을 둘러싼 학적 맥락과 얽힌 체계를 섬세하게 탐색하려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기한 차원의 연구사적 스펙트럼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sup>31)</sup>

### 1) 1950-1960년대 학회지를 통한 텍스트 연구의 층위

일간지등, 저널리즘을 통해 제기된 고전부흥 기획의 주요 화제는 전문가가 고전 텍스트를 소개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고전을 ‘학문’으로 수용하면서 그 수용자를 ‘대중 일반’으로 상정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sup>32)</sup> 여기서 필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등 전문 학자로 한정되었으며, 이들은 고전 텍스트를 ‘선정’하고 ‘해설’하며 ‘해제’하고 ‘해석’하는 고유한 방법론을 제안했다. 조운제는 『국문학개설』에서 ‘남아있는 옛날 작품=고전’<sup>33)</sup>이

31) 포괄적 연구로는 황종연, 「한국문학의 근대와 반근대: 1930년대 후반기 문학의 전통주의 연구」(동국대학교 박사논문, 1991); 차승기, 「1930년대 후반 전통론 연구」(연세대 박사논문, 2002)가 대표적이며, 미시적 연구로는 김영실, 「문장과 문학의 고전수용 양상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99), 차혜영(2005), 최기숙(2007) 등을 들 수 있다.

32) 이때 신문 구독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특집 “조선 고전문학의 검토”에 실린 고전 관련 글로는 김윤경의 「월인천강지곡 **해제**-한글로 노래한 최고의 문헌」, 김태준의 「신라 향가의 **해설**-민중예술로서 가요를 말함」, 이희승의 「용비어천가의 **해설**」이 있으며 <동아일보> 특집 “조선문학의 독자성-특질의 구명과 현상의 검토”에 실린 천태산인의 「춘향전의 현대적 **해석**」 등이 있다(**볼드체**는 필자).

라는 등식을 제안했지만, 문학사서술이나 장르론은 ‘남아있는 것들의 질서화’나 위계화 과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태준은 사회경제사적 시각으로 고전을 평가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고전’에 대한 ‘비평적 태도’를 견지하는 등,<sup>34)</sup> 학자들 사이에 ‘고전’의 함의는 ‘문학사 서술’ 방식의 ‘차이’를 보이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고전문학 관련된 텍스트 읽기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텍스트 선정의 기준을 논하기 이전에 연구자가 선택한 텍스트를 소개하고 해설한다는 사실 자체가 ‘고전’으로서의 지위를 설득하는 맥락을 구축하고 있었다. 대학의 국문과 담당 교수가 ‘강독’ 교재로 선택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한 작품들은 이미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닌 고전으로 간주되었으며,<sup>35)</sup> 특히 저자와 창작 시기가 불분명한 고소설의 경우는 텍스트의 위상을 가늠해내는 ‘이본 연구’를 본격적인 분석적 연구에 선행하는 연구 단계로 수행해야 했고, 그 자체만으로도 고전문학연구방법론으로서 인정되는 관행을 형성해 가고 있었다.

1950년대에 고전문학과 관련된 논문이 실린 학술지에는 <조선학보>

33) 조운제는 고전의 정의에 대해 ‘現在 남아 있는 옛날 作品은 이것을 大體로 古典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남아 있다는 거기에는 벌써 傳統性이 있고 歷史性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조운제, 『국문학개설』, 동국문화사, 1955, 46쪽).

34) 류준필(1998), 24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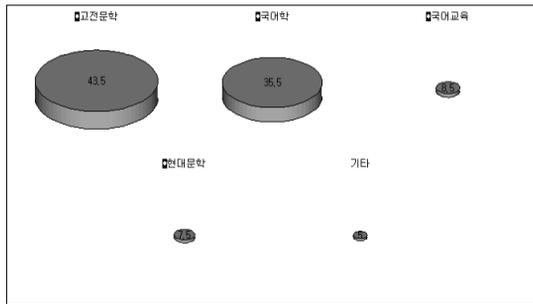
35) 예컨대, 이가원 교수는 『국어국문학』 10권(54.7)에 邦慶舞蹈-李古溪 作』을 게재했는데, 작가인 李古溪는 이가원 선생의 高王 考로 집안에 내려오는 가사를 소개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해당 텍스트가 계속 연구할 만한 고전 텍스트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해당 텍스트의 채택은 역으로 교수의 자의적인 텍스트 선정을 점검할 학적 시스템이 당시로서는 마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옛 문헌’으로 판단된 것을 ‘고전 자료’로 간주하여 존중하고 학술지에 게재하는 풍토는 1950년대부터 마련되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진단학보>, <동방학지>, <아세아연구>, <국어국문학> 등으로, 당시에  
 는 아직 고전문학만을 특화한 학회지가 존재하지 않았다.<sup>36)</sup> 이 중에서 고  
 전 ‘텍스트’의 원문을 소개하거나 번역하고 주재한 글이 게재된 학회지는  
 <국어국문학>, <동방학지>, <아세아연구> 등이며, <진단학보>에는 고  
 전문학 연구 논문은 실렸지만, 텍스트 소개의 글은 게재되지 않았다.

【표 4】 1950-1960년대 <국어국문학>에 게재된 국문학 세부 전공 논문 편수<sup>37)</sup>

1950년대 <국어국문학> 수록 논문 수					1960년대 <국어국문학> 수록 논문 수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교육	기타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교육	기타
65	73	9	4	10	108	146	31	48	13
40%	45%	6%	3%	6%	31%	42%	9%	14%	4%
계					계				
161					346				

【표 5】 1950-1960년대 학회지 <국어국문학>에 수록된 논문의 전공별 비중



36) 한 예로, 현재 국어국문학과의 고전문학 전공별 하위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고전문  
 학회’가 2010년에 40주년을 맞이한 바, 국문학 내부의 세부 전공으로 특화된 학회 창  
 립 및 학술지 발간의 역사는 1970년 이후로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7) 위의 통계는 필자가 해당 기간에 간행된 학회지 『국어국문학』의 전 목차를 검토한  
 뒤 작성한 것이다. 전공 판별이 어려운 경우(예컨대 국어학과 고전문학의 영역이 겹  
 칠 때)에는 논문 필자의 전공을 고려했다.

【표 6】 1950-1960년대 <국어국문학>에 게재된 고전 텍스트

(원문, 영인, 주해, 주석) 및 이본 연구 목록

1950-1960년대 <국어국문학>에 수록된 고전 텍스트			
필자	논문제목	권(발행연월)	비고
편집부	京板 春香傳 (1)-(4)	2권(52.12) -4권(53.6)	
이기원	元生夢遊錄 註釋	4권(53.2)	
강한영	春香歌 (1)-(5)	5권(53.6) -9권(54.4)	
이기원	邦慶舞蹈-李古溪 作	10권(54.7)	이기원 선생의 高王考의 가사를 소개함
정철	初刊 分類杜工部詩	11권(54.9)	해제+본문
정철	獨樂八曲·閑居十八曲-陶山書院 所藏	13권(55.4)	해설+본문
이주홍	관서별곡		
이기원	꼭독각시 실기	14권(55.12)	번역·주석+후기(해설)
김일근	太平廣記 諺解	17권(57.9)	소개, 해설, 텍스트 성격과 서지, 표기문자
정주동	觀水齋 洪啓英과 그의 歌辭 「喜雪」		논문+본문
임석재	鳳山 탈춤 臺詞	18권	
장주근	濟州島 巫歌 (一)	19권(58.6)	구술 채록과 후기(해설)
유한상	河回 別神假面舞劇 臺詞	20권(59.2)	채록
김봉영	枕肱歌辭 3篇-枕肱 尹懸辯 作		
김봉영	未發表의 「枕肱歌辭」에 대하여		
박노춘	道德歌 <南溟 曹植 作>?		원문 +후기(해설)
오한근	古時調 落穂		해제 +원문
이매기	統營 五廣大 臺詞	22권(60.8)	채록과 후기(해설)
김정록·김용섭	宗廟 樂章 譯註		
이능우·이옥	巴里 東洋語學校 韓國書目		목록
홍재휴	靑潭 蔡得沂와 「天臺別曲」(一名「鳳山曲」)에 대하여-丙子胡亂을 背景한 歌辭의 新資料		논문+원문
장주근	濟州島 巫歌 (二)	23권(61.5)	구술 채록과 후기(雜感)
정상박	固城 五廣大 臺詞		구술 채록과 후기
김일근	仁穆大妃 述懷文의 紹介와 몇 가지 문제	25권(62.6)	
정규복	「九雲夢」異本攷		* 이본 연구
이태극	새 歌辭註解 三篇	27권(64.8)	해설 +본문+註解
김용숙	歌辭 白花堂歌 外 數篇		해제 +본문
최한복·강권	水營 野遊劇	28권(65.5)	구술 +정리
류탁일	嶺南文獻錄-慶南篇	31권(66.3)	해제 +서지 목록
박노춘	「松江全集」影印本		해제
강전섭	漆室 李德一의 「憂國歌帖」		논문+본문

최강현	王朝 漢陽歌의 異本에 대하여	32권(66.6)	*이본 연구
신창순	新採 俗談		채집
이상보	金陵別曲	34 · 35권 (67.1)	교주+해제
박노준	完版本 洪吉童傳 (I)	36권(67.5)	해제+본문
김지용	俗樂歌詞 해제 (I)		해제+본문
김지용	俗樂歌詞 (II)	37 · 38권 (67.12)	본문
김태곤	黃泉解冤 풀이	39 · 40권 (68.5)	해제
이두현	楊州 소놀이굿		논문+본문
김일근	歌詞 『거창가(居昌歌)』(一名漢陽歌)	41권(68.9)	해제+본문
김동옥	雜歌		해제+원문 영인
편집부	外國에 있는 稀觀本 마이크로 필름 複寫	41권(68.9)	서지목록 소개
편집부	小說 坊刻本 一覽		목록 소개
편집부	寫本		목록 소개
편집부	坊刻本		서지목록 소개
편집부	其他 刊本		서지목록 소개

【표 4】는 1950-1960년대에 <국어국문학>지에 게재된 국문학 세부 전공별 논문 편수다. 【표 5】에 따르면 해당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양적 비중은 ‘고전문학(43.5%) > 국어학(35.5%) > 국어교육(8.5%) > 현대문학(7.5%)’의 순이다. 【표 6】은 1950-1960년대에 <국어국문학>에 게재된 고전 텍스트의 소개 및 이본 연구 목록이다. 총 219편의 논문 중에서 텍스트를 원문·번역·주해 형식으로 소개한 글이 45편이며 자료의 서지 목록을 소개한 글이 5편, 이본 연구가 2편이다. 이들을 총합한 자료 관련 글이 52편으로 고전문학 전체 논문의 24%에 해당한다. 자료를 소개한 경우는 모두 고전문학으로 한정되었으며, ‘근현대 문학’을 대상으로 텍스트를 소개하거나 주석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전 텍스트를 소개한 경우에도 원문을 그대로 영인하여 소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현대 활자로 싣고 각주를 달았으며, 해제를 통해 텍스트 이해에 근접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황은 1907년의 『대한자강회월보』나 『서우』, 『대한협회회보』,

『서북학회월보』 등에서 전근대 텍스트를 한문 그대로 싣거나 국한문 형태체로 게재한 형태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표 7】 1900년대 종합지에 게재된 고전 텍스트 소개 목록 및 형식 사례

잡지명(호수)	연도	필자명	제목	비고
대한자강회월보 (8-10호)	1907. 2. 25 - 4. 25	洪弼周 述	虎叱 出燕巖集	한문. * 출처 오류: 원출처는 <연암집>이 아닌 <열하일기>임
대한자강회월보 (8-10호)	1907. 2. 25 - 4. 25	朴趾源 撰 李鍾濬 譯(8-9호) 李晩茂 譯(10호)	許生傳	국한문 현토체 * 출처 오류: 위의 지적과 같음
대한자강회월보 (10호)	1907. 4. 25		西湖竹技詞	한문
서우(9호)	1907. 8. 1		溫達傳	국한문 현토체 * 『삼국사기』 <열전>을 저본으로 함
대한협회회보 (6호)	1908. 9. 25	浪仙魚無迹 秋聲子 輯	流民歎 (七古)	한문
서북학회월보 (14호)	1909. 7. 1		栗谷先生 自警文	국한문 현토체 * 『栗谷先生全書』 卷之十四, 雜著一
서북학회월보 (14호)	1909. 7. 1		金時習 先生傳	국한문 현토체 * 『栗谷先生全書』 卷之十四, 雜著一 중 맨 뒤의 율곡 평설은 삭제함

『대한자강회월보』, 『서우』, 『서북학회월보』 등은 교육 단체 및 학회의 기관지로서 애국계몽적 글과 교육적 취지의 글을 수록한 매체였다. 여기에 소개된 고전 텍스트들은 조선의 선양할 만한 옛 것과 옛 글을 알리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는데, 텍스트 소개 방식에 있어 한문 그대로인 원문을 전재하거나 국한문 현토체를 취하고 있어, 한문 해득력을 갖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잡지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대상 독자를 어떻게 상정했는가에 따라 고전 텍스트의 소개 방식이 상이했음을 보여준다.

1950년대를 전후로 한 학술지, 또는 종합지나 문예지의 경우, 대상 독자층은 점차로 한문 해득력을 갖추지 못한 집단으로 상정되고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다. 물론, 한문소설의 경우 번역 없이 원문을 수록하는 관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1940년의 『문장』지(15호:1940.4.1)에도 소개된 『鼠大州傳』과 같이 한문이 번역문 없이 그대로 전재된 경우도 존재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고전 텍스트를 소개하는 대체적인 방식은 원문을 활자화하거나 주석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독자’의 이해와 텍스트 근접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텍스트의 소개 및 주해, 번역을 ‘학문 활동’의 일부로 간주하는 태도는 근대 초기부터 확고히 형성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원문 소개의 앞이나 뒤에는 ‘후기’ 형식의 해설이나 해제를 첨부했는데, 여기에는 텍스트의 성격이나 서지사향, 표기 문자 등에 대한 소개의 글이 포함되었다. 후반부로 가면서 소극적인 해제 대신,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춘 소략한 연구 논문의 형식을 지닌 글도 실렸다. 원문 소개와 더불어 후기나 해제를 쓴 필자는 대부분 대학의 강사나 교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sup>38)</sup> 그러나 학회지의 필자는 점차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강사, 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자 중심으로 좁혀졌다.

이처럼, 고전문학 연구에 ‘자료’의 발굴과 소개, 주석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고전문학에 있어서는 저작권이나 출판서지의 개념이 정확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근대문학과는 분리되는 문학의 향유 조건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고, 이를 개별 텍스트의 차원에서 접근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 읽어야 할 고전인가에 대한 판단이나 토론에 앞서 ‘고전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 자체를 학문 활동 자체로 정당화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소

38) 예컨대 「학회 별신가면무극 대사」(20호)를 채록하여 실은 유한상은 안동군 충천면 주민으로서, 이두현의 도움을 받았다고 적었다.

개하고 번역하고 주석하는 것은 1950-1960년대 고전연구방법론의 주요한 영역으로 영토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사적 관행은 이미 경성제대 법문학부에서 자료 수집과 복간 및 영인 작업을 주요한 학술적 연구물로서의 전통을 형성해온 것이기도 했다.<sup>39)</sup>

주해나 주석, 번역이 된 고전 텍스트는 그것이 문학사에 편입될 만한 학적 가치를 지닌다는 판단을 함축한다. 텍스트를 주해하고 주석하는 행위 자체가 그것을 ‘정전화’하는 문화사적 의미맥락을 생산한다.<sup>40)</sup> 또한 그것을 출간하여 대학 교재로 활용하고 대중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는 그것에 문화사적 지위를 부여하는 강력한 홍보 효과를 갖게 된다.

‘옛글’<sup>41)</sup>은 ‘고전’의 지위를 얻음으로써 차별화되었다. 전문가의 주석과 해설, 비평의 세계를 받은 고전 텍스트는 시장에서 파는 딱지본 소설과는 다른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았다. 고전은 곧 고전문학 전공자, 비평적 감식안을 지닌 ‘학자’가 선택하여 ‘읽을 수 있게’ 가공(번역, 주해)함으로써 비

39) 경성제대에서는 연구자료를 얻기 위해 조선의 고문헌은 물론 일본, 중국, 구미의 조선 관계 자료의 수집과 고서 복간에 힘을 기울여, 총독부 학무과 分室에 있던 舊 규장각 소장도서를 대학으로 이관했고, 조선왕조실록 2부도 대학에 옮겼다고 한다. 고서 복간 작업으로는 조선문화연구의 기초자료와 귀중 고본을 9종 38책으로 복간했으며, 규장각 총서 부속 도서관 소장의 舊규장각본 중 역사, 언어, 문학 등에 관한 귀중 자료를 선정, 규장각총서로 1935년부터 1944년도까지 10종 9책을 간행했고, 조선왕조실록 1882권 888책을 1930-1933년에 영인 간행했다고 한다(정선이, 2002, 113-114쪽).

한편, 고서 수집은 1930년대 고전부흥 운동론의 중심 인물로 거론되는 이병기에게서도 발견된다. 이병기는 일종의 취미로서 고서수집에 전념해 『조선어문학명저체제』(『문장』 2권 8호, 1940.10.215-231면)를 썼으며, 서지학적 시각에서 서적을 정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동방학지』 3·5집,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57.8). 이상에 관해서는 류준필(1998), 202-203쪽을 참조.

40) Christopher Leigh Connery의 언급을 빌린다면 이것이야말로 ‘텍스트적 레짐(regime)의 공고화’라 하겠다(『텍스트의 제국』, 최정섭 옮김, 소명출판, 2005).

41) ‘옛글’의 함의에 대해서는 최기숙(2007)을 참조.

로소 교양 도서로 자리잡았다.<sup>42)</sup>

## 2) 1950년대 이본 연구의 문학 연구사적 효과와 정전 형성의 맥락

그렇다면 이제 ‘이본 연구’가 갖는 문학연구사적 효과, 그것이 확장된 대중문화사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이본연구를 통해 주해하고 주석하며 번역하는 텍스트가 확정되고, 그것이 대중적 리더러시를 확보하면서 텍스트는 (수)많은 이본군 속에서 스스로를 위계화하게 되고 권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창출하게 된다. 번역서의 출현 자체가 대중적 리더러시를 확보하면서 텍스트의 대중적 보급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곧 고전 독자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어떠한 문학 텍스트도 독자의 성립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이는 수용미학의 근본 취지다), 어떠한 고전 텍스트도 독자의 성립 없이는 불가능했고, 고전은 ‘원전’의 판별이라는 ‘전문적 감식’과 그에 따른 번역과 주해의 작업을 통해서만이 ‘고전’으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리더러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전문 독자의 탄생’을 통해 위계화되었다. 누가 읽는가와 어떻게 읽

42) 천정환은 “현재까지 통용되고 인정받는 한국 근대문학의 ‘정전(正典: canon)’ 혹은 ‘고전classic’들이 많은 작품들 가운데에서 선별되어 그 라인업line-up을 구성한 시기가 바로 1930년대 중·후반이라고 보았다(2003, 51쪽). 논자는 1920-30년대 독자층을 구할자본 고전소설(딱지본) 및 일부 신소설을 읽는 전통적 독자층, 대중소설, 번안소설, 신문 연재 통속소설, 일본 통속소설, 30년대 야담, 일부 역사소설의 향유자인 근대적 대중 독자, 신문에의 순문예작품, 외국 순수문학 소설, 일본 순문예작품을 읽는 엘리트적 독자층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은 유효성을 지나 완전한 배타적 구분은 불가능하다. 구소설의 독자가 순문예 독자일 수 있으며, 야담의 작가가 순문예 창작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로 소급해 보아도 당시에 소설읽기를 비판했던 사대부 지식인들이야말로 소설의 주요 독자층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1922년에 <춘향전>이 영화화되어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 시기까지도 <춘향전>은 전통적 독자층의 주요 독서대상물이 아니라 전 독자층을 아우르는 ‘대중적 독서물’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는가가 텍스트의 의미를 차별화하는 문화적 위계를 갖게 된 것이다.

대학은 그러한 고전을 번역 없이 원전으로 읽을 수 있는, 또는 ‘원본’과 ‘정본’, ‘선본/선본’이라는 관념 속에서 ‘텍스트’에 접근하는 교육의 장으로 작용함으로써 대중 독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문화적 산파의 역할을 담당했다. 동시에 ‘전문 독자’라는 ‘연구자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대중 독자에게 ‘믿을만한’ 고전독서물을 ‘제공’하는 학적 지위 자체를 문화적 상징자본으로 구축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다. ‘정전은 출판, 구입, 보존, 인용, 낭송, 번역, 공연, 인용, 모방되는 갖가지 가치 평가 행위들을 통해 재생산되고 전수되는 텍스트들<sup>43)</sup>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주요 대학 교수들의 연구와 강의 대상이 되고, 번역과 주해서로 출간됨으로써 일반인들도 ‘읽어야 할/읽을 수 있는’ 교양 텍스트로서의 문화사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고전적 가치’는 자명하게 확보되는 것으로 상정되었으며, ‘고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자체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으로는 ‘동일/유사’ 제목으로 무수한 이본이 존재하는 고소설과 같은 경우, 판본 연구나 이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원본’이나 ‘정전’을 가려내기보다는 이본들간의 차이 서술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전’, 또는 ‘선본’을 지정함으로써 ‘정전’을 확정하려는 연구행위는 결국 이본간의 무수한 ‘대조’를 통해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축소되고, 텍스트를 바꾸어 무한히 반복하는 다소 소모적이지만 외면할 수 없는 연구의 관행을 형성했다. 예컨대, 가장 많은 이본 연구의 대상이 된 <춘향전>의 경우, 현재까지 ‘선본’이나 ‘원작’을 확정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원본’이나 ‘정전’의 확정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하나의 ‘이상’이자 관념이기 때문에, 고전문학연구자는 다만 텍스트 간의 차이 서술을 하고 의미를 부여할

43) 송무, 『영문학에 대한 반성』, 민음사, 1997, 357쪽.

수 있을 뿐, 텍스트의 성운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그 정점에 위치한 ‘정전’을 선언하는 것이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인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학회지에 소개된 고전 자료나 단행본으로 출간된 고전 번역물들은 연구자의 소개나 번역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를 고전으로 확정하는 문화적 의미를 생성하고 있었다. 고전 강독이라는 강좌, 주해와 번역, 이본 연구라는 고전문학연구방법론은 그 자체로 고전을 확정해 내는 문화 가치를 생성했던 것이다.

## 5. 결론

현재 한국 고전, 특히 고전문학이란 한국인이 알아야 할 국민국가의 교양知’라는 문화적 위상을 갖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고전의 문화사적 지위는 1950년대 한국 대학의 국문학과와 세부 전공인 ‘고전문학’ 분야의 개설 강좌 및 그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을 통해 형성되었고, 학술지나 종합지, 문예지 등의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고전텍스트에 대한 일차적 문해력은 고전문학이라는 전공의 학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소양으로 간주되었으며, 텍스트의 의미 맥락에 접근하는 비평적 이해 능력에 앞서서 수행해야 할 일차적 연구 활동으로 자리잡았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무엇을 읽는가’의 문제는 ‘어떻게 읽는가’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간주되었고, 대상 텍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읽기를 둘러싼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모색되었다. 일차적으로는 대학의 교수와 강사들이 원전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작업을 중요한 학문 활동으로 전개하면서 학회지와 종합지 등에 이를 발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학적 토론의 장이 부재한 가운데 교수가 번역과 주해, 강독의 대상으로 선택한 텍스트 자체가 사실상의 정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고전 발굴과 번역이 고전문학 연구방법론으로 간주되는 가운데 이를 일반 교양잡지나 문예지에 수록하고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고전 텍스트는 인문 교양서로 자리매김되었다. 교수들은 학보를 통해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 텍스트를 발굴하거나 소개하는 글을 기고했으며, 이를 통해 문학 전공자의 전문적 소양으로 간주되었던 고전 번역 능력과 텍스트 해석 능력은 대학생 일반의 차원에서 가치 있는 학문 능력의 일부, 또는 교양 '지'의 일부로 홍보되고 승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사적 관행은 이미 경성제대 법문학부에서 자료 수집과 복간 및 영인 작업을 주요한 학술적 연구물로서의 전통을 형성해온 것이기도 했다.

고전 텍스트에 대한 리터러시의 확보 문제는 단지 '한자'라는 표기문자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았으며, '고소설', '시조' 등 국문으로 표기된 경우에도 텍스트 읽기에 앞선 이본 연구, 또는 판본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학문적 관례를 형성하는 가운데, 대학에서의 '고전 강독' 강좌를 통해 학문 연구로서의 고소설을 읽는 행위와 취미로서의 딱지본, 또는 육전소설을 읽는 행위는 문화적 층차를 갖는 활동으로 위계화되었다.

1950년대의 국어국문학의 강좌 개설 과정에서 고전문학이 독자적인 학적 영역으로 영토화되고, 특히 강독 관련 강좌는 텍스트에 대한 리터러시의 확보를 고유한 학적 소양으로 간주하는 문화를 형성했다. 그 과정에서 학회지와 교양지는 전근대 텍스트를 학적 대상으로서의 '고전' 및 교양으로 위치 짓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은 현재까지도 대학의 국어국문학 편제와 과목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고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배제한 채, 국문학 연구사 속의 자명한 정의

로 수용하면서 연구사적 관행을 지속해가고 있다. 국어국문학의 하위 범주로서의 고전문학의 정체성, 그리고 그 고유한 연구방법론이 형성되어온 역사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전문학 연구는 물론 국문학 연구, 나아가 문학 연구의 본령을 재성찰하고 재논의하는 학적 사유의 기회가 형성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 참고문헌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협회회보』

『동방학지』

『서북학회월보』

『서우』

『문장』

『연회춘추』, 『연세춘추』, 『대학신문』

『조선학보』

조윤제 교주, 『춘향전』, 박문서관, 1939.

이가원 주석, 『춘향전』, 정음사, 1957.

김건우, 『1950년대 후반 문학과 <사상계> 지식인 담론의 관련 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1-199쪽.

김영실, 『문장과 문학의 고전수용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9, 1-65쪽.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박희병 교주, 한길사, 1990, 1-280쪽.

류준필, 『形成期 國文學研究의 展開樣相과 特性: 趙潤濟·金台俊·李秉岐를 中心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98, 1-269쪽.

송 무, 『영문학에 대한 반성』, 민음사, 1997, 1-403쪽.

이종호, 『1950년대 남한 문학전집의 출현과 문학정전화의 욕망 민중서관 『한국문학전집』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5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349-382쪽.

- 이태극, 『古典 研究 序說』, 『국어국문학』 2집, 국어국문학회, 1952, 1-4쪽.
- 이형대, 『1920-30년대 시조의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8, 265-293쪽.
-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002, 1-230쪽.
- 정선이, 『연희전문 문과의 교육』, 연세대 국학연구원원, 『근대학문의 형성과 연희전문』, 2005, 59-112쪽.
- 조운제, 『국문학개설』, 동국문화사, 1955, 1-566쪽.
- 차승기, 『1930년대 후반 전통론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2, 1-163쪽.
- 차혜영, 『‘조선학’과 식민지 근대의 ‘지(知)’의 제도』, 『국어국문학』 140호, 국어국문학회, 2005, 505-533쪽.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1-563쪽.
- 최기숙, 『‘옛 것’의 근대적 소환과 ‘옛 글’의 근대적 재배치: 『소년』과 『청춘』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4집, 민족문학사학회, 2007, 304-335쪽.
- 최기숙, 『1950년대 대학생의 인문적 소양과 교양‘知’의 형성: 1953-1960년간 <연희춘추/연세춘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2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123-167쪽.
- 최기숙, 『1950년대 대학의 ‘고전강독’ 강좌의 탄생과 ‘고전연구방법론’의 형성』, 연세대 국학연구원 HK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연세대 학술정보관 620호 세미나실, 2010. 8. 20.
- 한기형, 『신소설의 근대문학적 위상』, 성대 박사논문, 1997, 1-178쪽.
- 황종연, 『한국문학의 근대와 반근대: 1930년대 후반기 문학의 전통주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1991, 1-235쪽.
- Christopher Leigh Connery, 『텍스트의 제국』, 최정섭 옮김, 소명출판, 2005, 1-335쪽.

ABSTRACT

The Formation and Dissemination of Research Methodology o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through Analyzing the Academic Journals and  
Reading Classes Organized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of Universities during 1950's

- focusing on the Text research and the formation of Canon

Choe, Key-Sook\*

Korean universities were reorganized during 1950's as a modernistic system. The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were divided into three parts: Korean classical(pre-modern) literature,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Korean language. Especially the part of premodern literature began to make its own identity with a series of reading class regarding classical texts and also began to demand the unique academic ability of literacy on the classical texts. The most basic step to approach the research on the classical literature was the analysis on the text: What is the original text or authentic text? Which text is the prior text? and What is the canon most of all? Such process implied some problematic academic issues: selecting the text, possibility of approaching and using on the research materials, literacy regarding such classical text, expertise on the reading methodology regarding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nd final decision on the canon, etc.

The Korean old-type printed novels were the items which were read in reading class and also were researched to discern which was the original version prior text or canon. At that time such novels were read amongst the public as a interesting popular books. However such genre of old-type printed novels regarded as classics according to being regarded as textbooks in the university classes. They were endowed an

---

\* Yonsei University

academic position related a sort of change of cultural position. Originally the old-type printed novels had been considered as a vulgar popular genre, a sort of sub-culture or peripheral genre until 1950's. However such text began to be treated as research objects in the university class by the professors and lecturers. Through such process, Korean old-type printed novels were regarded as classical genre, different from the peripheral popular ones. Finally, they got to be called as the classics. A lot of professors and researchers contributed some classical texts in the academic journals, literature magazines and the other periodicals as form of photoprints and original texts with notes and annotations. The public readers began to be considered such texts tributed in the contemporary periodicals.

In short, the research on the premodern texts began to bring the power which made them to be considered as classics amongst the university students and public readers through the professors's lecture of reading class and contributions for the periodicals. The public could such text as a sort of classical novels with translation versions or with annotations. Finally the such text began to be considered canon with literary-historical orthodoxy.

**Key Words** 1950's,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research methodolog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reading class regarding Korean classical text, original text, authentic text, prior text, canon, culture, research on the text, academic journal, classical novel, novel covered by *Ttakji*(old-type printed novel),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literacy

논문투고일 : 2010. 10. 15
심사완료일 : 2010. 11. 26
게재확정일 : 2010. 12. 3